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

2021년 9월 7일 | Vol. 23 No. 4
ISSN 2093-341X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의 제7차 인구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및 전망

KIEP 북경사무소 (leehn@kiep.go.kr, Tel: 86-10-8497-2870)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의 제7차 인구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및 전망

차 례

1. 인구조사 개요
2. 제7차 인구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3. 제7차 인구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
4. 평가와 전망

주요 내용

▣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지난 5월 11일 제7차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

- 2020년 말 기준 중국의 총인구는 14억 1,178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0년보다 7,206만 명이 늘어난 규모임.
-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982년 2.09%로 정점에 이른 후 매년 둔화되고 있음.
- 권역별 비중은 동부지역이 2009년에 비해 2.1%p 증가한 39.9%를 기록해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에 발표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저출산율,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인구구조에 변화가 발생했으며, 도시화율의 가속화, 농민공의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도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남.

- (저출산율) 출생아수는 1962년 이후 해마다 최저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는 가임연령대의 여성인구의 감소, 경제활동 참여율의 향상으로 높아진 혼인·출산 연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빠른 고령화 추세는 노동력 감소, 사회보장 비용의 압박 등으로 경제·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도시화의 가속화) 도시지역 인구비중은 63.89%로 2010년에 비해 14.2%p가 증가하였음. 이러한 도시지역 상주인구의 증가는 유동인구, 즉 농민공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그동안 인구 증가를 통해 누려왔던 인구보너스가 점차 사라지면서 인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인재보너스를 누리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관련 실버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인구증가율의 둔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은 향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인구의 교육·건강·교양 등의 수준을 향상시켜 인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이 중점 추진될 전망
-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는 탈공업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 제조업의 고도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노동대체형 기술개발의 가속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됨.
- 인구구조의 변화로 향후 고령화와 관련된 노인돌봄서비스·의료보건서비스·가사서비스 등의 실버산업, 관광산업, 레저산업, ICT서비스 등이 빠르게 발전될 전망

1. 인구조사 개요

■ 지난 5월 11일,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은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를 발표[1)]

- 조사대상은 31개 성·시·자치구(省·直辖市·自治区)의 거주민이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과 외국인 수는 포함하지 않음.
- 인구조사는 10년을 주기로 이뤄지고 있으며, 1953년 제1차 인구센서스를 시작한 이후 올해 제7차 인구센서스가 진행되었음.
- 이번에 진행된 제7차 인구센서스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전국 성·시·현·향(省·市·县·乡)급 행정단위에 67만 9,000개의 센서스 기구를 조직하고, 700만 명의 조사요원을 선발하여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함.
- 본래 해당 센서스 결과는 지난 4월 초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예상보다 한 달 가량 늦게 발표되었기에 중국 총인구가 14억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음.
- 이번 센서스에서는 특히 처음으로 전자화 방식을 도입하였음.
  - ○ 주민들은 '방문 등록'이나 '자체 신고'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센서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지역에 '자체 신고' 의무 할당량을 부여하였음.
  - ○ 상당수의 농촌지역은 소셜미디어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이 많아 조사요원들이 의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여 도우미 역할을 함.
- 표본 사후조사는 31개 성·시·자치구 중 141개 현(县)의 3.2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7차 센서스의 누락률은 0.05%로 집계되어 누락률에 따른 오차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힘.

2. 제7차 인구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 (총인구) 2020년 기준 중국의 전체 인구는 14억 1178만 명으로 집계되었음. 이는 세계 인구의 약 18%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중국은 여전한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게 되었음(그림 1 참고).

- 이번 조사에서 중국 총인구는 10년 전 제6차 때 집계된 13억 3972만 명 보다 7206만 명(5.84%) 늘어나 연평균 0.5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2차 조사(1954~1964년) 1.61%, 3차 조사(1965~1982년) 2.09%, 4차 조사(1983~1990년) 1.48%, 5차 조사(1991~2000년) 1.07% , 6차 조사(2001~2010년) 0.57%에 비하면 연평균 증가율은 1982년을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양상이며, 이번 센서스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6차 센서스 때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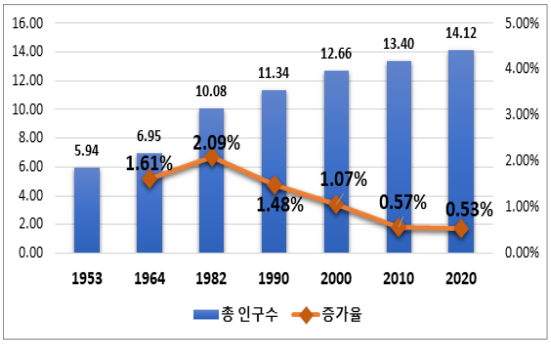
1)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http://www.stats.gov.cn/tjsj/zxfb/202105/t20210510_1817177.html).

0.04% 하락하여, 인구 증가율은 다소 둔화함.

- 추가적으로, 국가통계국은 중국 본토 외에 홍콩(747만 명), 마카오(68만 명), 타이완(2356만 명) 인구수가 포함된 중화권 전체 인구수도 함께 발표하였음.

그림 1. 중국의 총인구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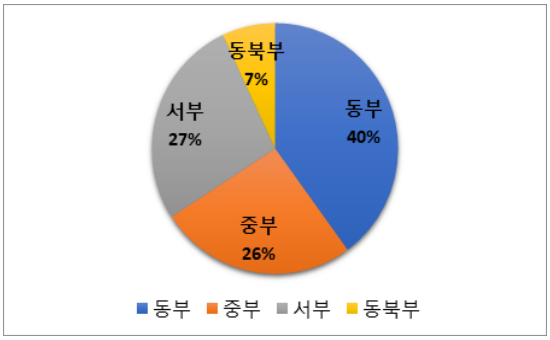
(단위: 억 명, %)



자료: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그림 2. 중국 지역별 인구 비중

(단위: %)



자료: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 (지역별 인구 분포) 지역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동부 39.9%, 중부 25.8%, 서부 27.1%, 동북부 6.9%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동부와 서부 인구의 비중은 각각 2.1%와 0.2% 올라갔지만 중부와 동북부는 0.7%와 1.2% 내려간 것으로 확인되었음(그림 2 참고).

- 본 센서스로 집계된 중국 인구의 지역별 분포는 여전히 동부와 중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별 쏠림 현상도 심해진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대해, 닝지저(寧吉喆)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중국 동북지방의 인구 감소는 자연환경, 지리환경, 인구 출산 수준과 경제사회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동북지방은 고위도 지역으로 겨울이 상대적으로 길고 추워 일부가 비교적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했다. 다만, 이는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인구가 이동하는 추세적 특징으로 유럽,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힘.

■ (지역별 인구수) 중국 31개 성·시 중 광둥성(1억 2601만 2510명)과 산둥성(1억 152만 7453명)의 전체 인구가 1억 명을 넘어 중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 가운데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지역은 2곳(산둥성, 광둥성)이며, 5000만 명 이상인 지역도 허베이성, 장쑤성, 저장성 등 9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됨. 수도인 베이징은 2189만 3095명으로 집계됐음.

표 1. 중국 주요 지역별 인구 수 및 비중

지역(省)	인구 수(만 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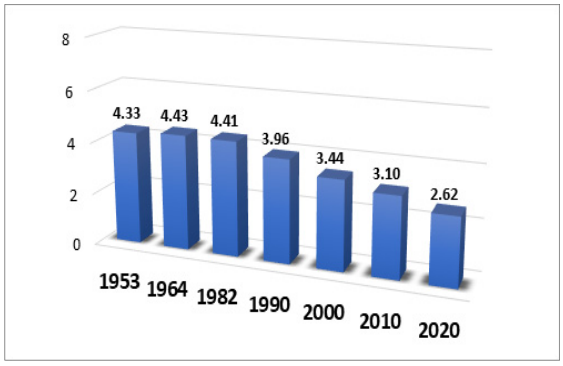
		2020년	2010년
광둥	12,601.3	8.93	7.79
산둥	10,152.7	7.19	7.15
허난	9,936.6	7.04	7.02
장쑤	8,474.8	6.00	5.87
쓰촨	8,367.5	5.93	6.00
허베이	7,461.0	5.28	5.36
후난	6,644.5	4.71	4.90
저장	6,456.8	4.57	4.06
안후이	6,102.7	4.32	4.44
후베이	5,775.3	4.09	4.27
광시	5,012.7	3.55	3.44
윈난	4,720.9	3.34	3.43
장시	4,518.9	3.2	3.33
랴오닝	4,259.1	3.02	3.27
푸젠	4,154.0	2.94	2.75
산시(陝西)	3,952.9	2.80	2.79
구이저우	3,856.2	2.73	2.59
산시(山西)	3,491.6	2.47	2.67
충칭	3,205.4	2.27	2.15
헤이룽장	3,185.0	2.26	2.86
신장	2,585.2	1.83	1.63
간쑤	2,502.0	1.77	1.91

자료: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 (중국 전체 가구 수) 본 센서스 상 집계된 가구 수는 총 4억 9416만 가구로, 평균 구성원은 2.62명으로 10년 전인 6차 인구센서스 당시의 3.10명 보다 0.48명 감소했음(그림 3 참고).

그림 3. 중국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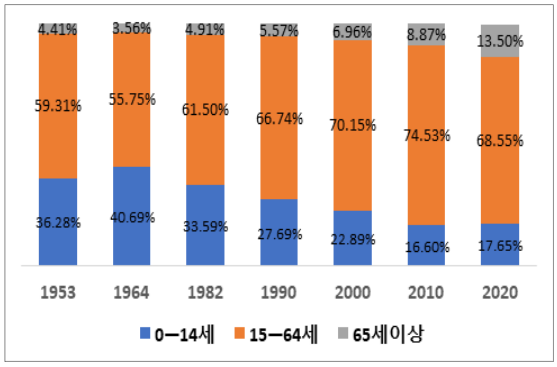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그림 4. 중국의 연령대별 비중

(단위: %)



자료: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 (중국 연령대별 분포) 중국의 연령대별 분포는 14세 이하는 17.95%, 15~59세는 63.35%, 60세 이상은 18.7%로 각각 집계되었음(그림 4 참고).

-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3.5%로 급증하였는데, 이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15~59세는 6.79%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은 5.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줌.

■ (지역별 연령대별 분포) 중국 31개 성·시 가운데 15~59세 인구 비중이 65% 이상을 차지한 성·시는 총 13개이며, 60%~65%를 차지한 성·시는 15개, 60% 이하를 기록한 성·시는 단 3개뿐이었음.

- UN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 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짱을 제외한 30개 성·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7%를 넘었으며, 이 중 12개 성·시는 14%를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가장 '젊은' 지역은 시짱으로 확인되었음.
  ○ 시짱의 경우 0~14세 인구 비중이 24.53%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반면에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8.52%로 전국 최저를 기록하였음.
- 반대로 가장 '늙은' 지역은 랴오닝으로, 랴오닝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5.72%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17.42%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음.

표 2. 중국의 지역별·연령대별 인구 비중

(단위: %)

지역	0~14세	15~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전국 평균	18.0	63.4	18.7	13.5
베이징	11.8	68.5	19.6	13.3
톈진	13.5	64.9	21.7	14.8
허베이	20.2	59.9	19.9	13.9
산시(山西)	16.4	64.7	18.9	12.9
네이멍구	14.0	66.2	19.8	13.1
랴오닝	11.1	63.2	25.7	17.4
지린	11.7	65.2	23.1	15.6
헤이룽장	10.3	66.5	23.2	15.6
상하이	9.8	66.8	23.4	16.3
장쑤	15.2	63.0	21.8	16.2
저장	13.5	67.9	18.7	13.3
안후이	19.2	62.0	18.8	15.0
푸젠	19.3	64.7	16.0	11.1
장시	22.0	61.2	16.9	11.9

산둥	18.8	60.3	20.9	15.1
허난	23.1	58.8	18.1	13.5
후베이	16.3	63.3	20.4	14.6
후난	19.5	60.6	19.9	14.8
광둥	18.9	68.8	12.4	8.6
광시	23.6	59.7	16.7	12.2
하이난	20.0	65.4	14.7	10.4
충칭	15.9	62.2	21.9	17.1
스촨	16.1	62.2	21.7	16.9
구이저우	24.0	60.7	15.4	11.6
윈난	19.6	65.5	14.9	10.8
시짱	24.5	67.0	8.5	5.7
산시(陕西)	17.3	63.5	19.2	13.3
간쑤	19.4	63.6	17.0	12.6
칭하이	20.8	67.0	12.1	8.7
닝샤	20.4	66.1	13.5	9.6
신장	22.5	66.3	11.3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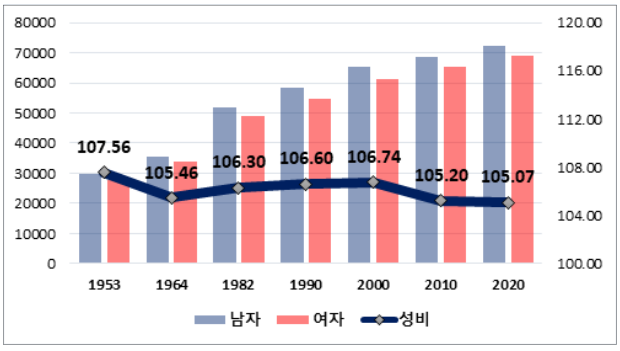
자료: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 (중국의 남녀 성비) 이번 통계에서 중국 전체 인구의 51.24%인 7억 234만여 명이 남성이며, 여성 100명당 남성의 인구수를 뜻하는 남녀 성비는 105.07명으로 집계

- 6차 인구 조사 당시의 105.2명 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 중국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정도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나라지만, 이번 센서스에서는 성비 불균형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여짐.

그림 5. 중국 남녀 인구수 및 성비 추이

(단위: 만 명, %)



자료: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 (지역별 남녀 성비) 동북 3성의 젊은 남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동부 연안으로 향하다 보니 중국 특유의 남초(男超) 현상에서 비켜나 있다.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는 각각 99.69와 99.7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헤이룽장성도 100.35로 전체 평균(105.07)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동북 지역은 한 자녀 정책을 가장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경제적 요인 때문에 남성 인구 유출이 많다"라며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긴 것까지 더해져 여초 현상이 굳어졌다"라고 주장함.

표 3. 중국의 지역별 남녀 성비

지역	비중(%)		성비	지역	비중(%)		성비
	남	여			남	여	
전국	51.2	48.8	105.1	허난	50.2	49.8	100.6
베이징	51.1	48.9	104.7	후베이	51.4	48.6	105.8
톈진	51.5	48.5	106.3	후난	51.2	48.8	104.8
허베이	50.5	49.5	102.0	광둥	53.1	46.9	113.1
산시(山西)	51.0	49.0	104.1	광시	51.7	48.3	107.0
네이멍구	51.0	49.0	104.3	하이난	53.0	47.0	112.9
랴오닝	49.9	50.1	99.7	충칭	50.6	49.4	102.2
지린	49.9	50.1	99.7	스촨	50.5	49.5	102.2
헤이룽장	50.1	49.9	100.4	구이저우	51.1	48.9	104.5
상하이	51.8	48.2	107.3	윈난	51.7	48.3	107.2
장쑤	50.8	49.2	103.2	시짱	52.5	47.5	110.3
저장	52.2	47.8	109.0	산시(陝西)	51.2	48.8	104.8
안후이	51.0	49.0	103.9	간쑤	50.8	49.2	103.1
푸젠	51.7	48.3	106.9	칭하이	51.2	48.8	105.0
장시	51.6	48.4	106.6	닝샤	50.9	49.	103.8
산둥	50.7	49.3	102.7	신장	51.7	48.3	106.9

자료: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 (중국 교육수준) 전체 인구 중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2억 1,836만 명으로 집계

- 2010년에 비해 10만 명당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가 8,930명에서 15,467명으로 상승했고
-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수혜 기간이 9.08년에서 9.91년으로 증가
-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문맹률은 2010년 4.08%에서 2.67%로 하락
- (지역별 교육수준) 중국 31개 성·시 중 베이징은 10만 명당 대학 수준을 가진 인구가 41980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

○ 베이징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수혜 기간도 12.64년으로 이 또한 전국 최고를 기록해 베이징 거주자가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음.

표 4. 중국의 지역별 교육 수준

지역	10만 명당 교육단계별 이수 인구수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수혜 기간	
	대학	고등	중등	초등	2020년	2010년
전국	15,467	15,088	34,507	24,767	9.9	9.1
베이징	41,980	17,593	23,289	10,503	12.6	11.7
상하이	33,872	19,020	28,935	11,929	11.8	10.7
톈진	26,940	17,719	32,294	16,123	11.3	10.4
산시(山西)	17,358	16,485	38,950	19,506	10.5	9.5
광둥	15,699	18,224	35,484	20,676	10.4	9.6
랴오닝	18,216	14,670	42,799	18,888	10.3	9.7
산시(陝西)	18,397	15,581	33,979	21,686	10.3	9.4
장쑤	18,663	16,191	33,308	22,742	10.2	9.3
지린	16,738	17,080	38,234	22,318	10.2	9.5
신장	16,536	13,208	31,559	28,405	10.1	9.3
하이난	13,919	15,561	40,174	19,701	10.1	9.2
네이멍구	18,688	14,814	33,861	23,627	10.1	9.2
후베이	15,502	17,428	34,280	23,520	10.0	9.2
헤이룽장	14,793	15,525	42,793	21,863	9.9	9.4
후난	12,239	17,776	35,636	25,214	9.9	9.2
허베이	12,418	13,861	39,950	24,664	9.8	9.1
닝샤	17,340	13,432	29,717	26,111	9.8	8.8
충칭	15,412	15,956	30,582	29,894	9.8	8.8
저장	16,990	14,555	32,706	26,384	9.8	8.8
허난	11,744	15,239	37,518	24,557	9.8	9.0
산둥	14,384	14,334	35,778	23,693	9.8	9.0
장시	11,897	15,145	35,501	27,514	9.7	8.9
장시	11,897	15,145	35,501	27,514	9.7	8.9
푸젠	14,148	14,212	32,218	28,031	9.7	9.0
광시	10,806	12,962	36,388	27,855	9.5	8.8
안후이	13,280	13,294	33,724	26,875	9.4	8.3
스촨	13,267	13,301	31,443	31,317	9.2	8.4
간쑤	14,506	12,937	27,423	29,808	9.1	8.2
칭하이	14,880	10,568	24,344	32,725	8.9	7.9
윈난	11,601	10,338	29,241	35,667	8.8	7.8
구이저우	10,952	9,951	30,464	31,921	8.8	7.7
시짱	11,019	7,051	15,757	32,108	6.8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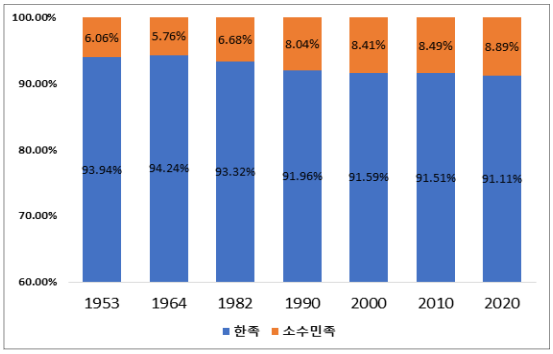
자료: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 (민족 구성) 소수민족의 인구는 1억 1379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들은 중국 전체 인구 중 8.49%를 차지하고 있음. 소수민족 인구는 지난 6차 인구 조사 당시보다 6.92% 증가하였고, 한족의 경우 6차 때보다 5.74% 증가한 12억 2593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은 전체 인구의 91.51%를 차지하고 있음(그림 6 참고).

■ (도·농 인구) 이번 센서스에서 집계된 도시 인구수는 9억 1,991만 명으로 총인구에서 약 63.8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체 비중의 약 36.11%를 차지하는 농촌 거주 인구 5억 9,787만 명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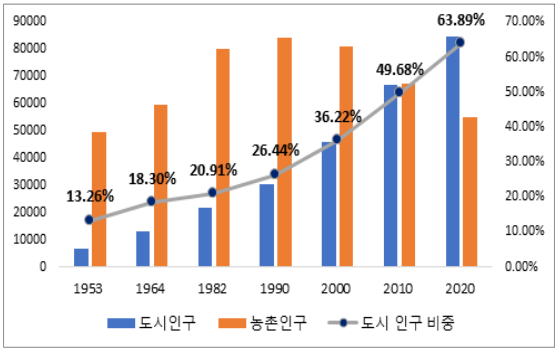
- 2010년 6차 센서스보다 도시 인구는 2억 3,642만 명이 늘었으며, 농촌 인구는 1억 6,436만 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됨.
- 호적 등록지와 상주 거주지가 6개월 이상 다른 인구를 뜻하는 호적분리인구(人户分离)는 4억 9,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5%에 달함.
- 호적분리인구 중 유동인구 수는 3억 7582만 명으로, 그중 성내 유동 인구는 2억 5,098만 명, 성외(省外) 유동인구는 1억 2,484만 명으로 집계되었음. 2010년 6차 센서스와 비교하면 1억 5,439만 명(69.73%)이 증가하였음.

그림 6. 중국의 민족 구성 비율의 추이



자료: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그림 7. 중국 도농 인구 및 도시화율 추이



자료: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3. 제7차 인구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

■ 10년마다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중국의 인구센서스는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임.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구 대국'이라는 타이틀은 중국의 힘과 경쟁력을 과시하는데 주요 요소이기도 하며, 앞으로 중국은 이번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임.

- 이번 인구조사에서는 저출산율, 고령화 추세가 본격화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밖에 인구의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중국 경제발전의 견인차인 농민공의 감소세로 인해 중국 생산 인구의 구조와 분포가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이슈로 부상

■ (저출산율)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두 자녀 정책'을 전명 시행했던 2016년에는 출산율이 'V자' 반등하기도 했으나 그 다음 해인 2018년부터 출생아 수는 다시 감소하여 1962년 이래 현재 해마다 최저기록을 갱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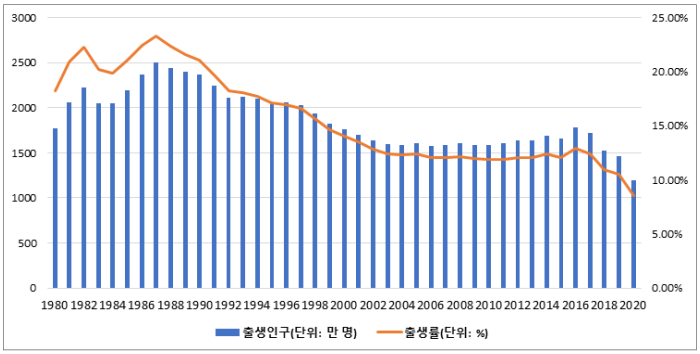
○ (저출산율의 원인) 가임 연령 여성 인구의 감소, 특히 주 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짐. 이번 인구센서스를 기반으로 중국의 가임 연령인 15~49세 여성의 인구는 3억 2000만 명, 주출산 연령대인 20~34세 여성 인구는 1억 4000만 명으로 추산됨. 이는 5년 전 2016년의 각각 3억 6000만 명, 1억 6000만 명과 비교해봐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율의 원인) 중국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교육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에 따라 혼인·출산 연령도 늦어지고 있음. 베이징대학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北京大学中国社会科学调查中心)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여성의 초혼 연령은 2010년 23.8세에서 2020년 26.5세로 높아졌음.

- 공보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가임연령대 여성의 희망 자녀수는 1.8명이나, 실제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0.5명 정도의 차이를 보임.

○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자녀 돌봄 부담, 난임 등이 있음.

그림 8.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 및 출생률 추이



자료: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 (세 자녀 정책) 중국은 지난 5월 31일 출산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부부에게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세 자녀 정책' 시행하기로 결정

○ 중국은 지난 1970년대부터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2015년 해당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한 바 있으며, 5년 만에 또다시 출산 제한을 풀기로 한 것임. 일부에서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핵가족화) 이번 센서스에서 집계된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2.62명으로 2010년 때의 3.10명 보다 크게 감소하여 전통적인 '3인 가구'의 인식을 깼다는 점에서 주의를 끌었음.

-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가족 구성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 중국의 핵가족화 현

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과거보다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핵가족화 원인) 이에 대한 이유는 출생 수의 감소로 대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가족 규모가 축소되었고 또한 인구 이동도 잦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그중에서도 다세대 가구 수는 크게 줄었지만, 3세대 가구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인 2세대 가구는 크게 감소하였음.

○ 그에 비해 1세대 가구나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독거노인 세대의 증가와 청년의 혼인-출산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고령화) 7차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6,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7%를 차지하고 있음. 그중 65세 이상 인구는 1억 9,640만 명으로 13.50%를 차지함.

- 중국의 출생 증가율이 둔화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기적으로도 노동력 감소와 연금 등의 사회보장비용 지출 압박 등 경제·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중국의 균형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 (고령화 원인) 〈중국 발전 보고서 2020: 중국 인구 고령화의 발전 동향 및 정책 (中国发展报告 2020 : 中国人口老龄化的发展趋势和政策)〉에 따르면 중국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원인은 우선 중국 산아제한의 영향으로 인구 기반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현대 사회의 일부 비출산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출산율 감소가 장기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임.

○ 전반적으로 출산율 하락과 평균 수명이 높아짐으로써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 (고령화 분석) 화동사범대학교(华东师范大学) 경제학부 우신루(吴信如) 교수는 중국 고령화 문제에 대해 “중국 고령화 문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첫째,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출생아 수의 감소 외에도, 생활수준, 의료 및 보건 수준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둘째, 노년층의 경험과 연륜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임.

○ 셋째, 노년층이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 캠핑카 등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음.

○ 넷째, 많은 노인들은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타지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들이 많아 양로산업과 양로주택에 대한 주요 수요가 증가

○ 다섯째, 1960년대와 그 이전에 태어난 인구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이 한창이던 때에 맞춰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많이 축적했고, 추후 젊은 세대에게 부동산과 많은 금융 자본을 넘겨 향후 1인당 소득 증가를 촉진할 것임..

○ 여섯째, 큰 규모의 노인 인구는 보건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음.

- 쓰촨톈푸건강산업연구원(四川天府健康产业研究院) 멍리롄(孟立聯) 수석전문가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자제해야 함을 강조

○ 현재 중국은 장수사회(长寿社会) 초입에 서있지만, 인구 통계학적 시스템은 여전히 산업사회에 머물러 있어 인구 통계학적 지식과 시스템의 쇄신이 시급

○출산 장려와 정년 연장 등으로 고령화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고령화

의 질적 향상을 근본적으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전망

○ 중국공산당 19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재와 향후 전반적인 전략적 계획과 체계적 정책 수립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공공관리 및 인적자원연구소(国务院发展研究中心公共管理与人力资源研究所人力资源研究室) 첸청(钱诚) 연구원은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1억 906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며 중국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고 설명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중국의 잠재성장률, 고용, 소비, 투자, 저축, 소득분배, 사회보장 및 정부 공공서비스 등이 큰 도전에 직면할 것

○ 반면 소비의 경우 실버서비스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와 관련 소비수요를 유발할 것이라고 분석

-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의 장번보(张本波) 연구원은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계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자본축적률이 저하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생산성에 의해 달성하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혁신과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노인인구 비중의 확대에 따른 양로·의료 등 사회보장 서비스 부담도 커질 수 있음을 우려

- 판구 싱크탱크(盘古智库)의 고령사회연구센터 리자(李佳) 연구원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무엇보다 고령층 노동에 대한 가치와 시스템을 정립하고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하여 인구 발전을 양적에서 질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만 새로운 인구보너스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언급

- 다수의 전문가들은 최신 인구 변화 추이와 특성에 맞춰 다음 단계인 출산과 노후 정책을 조정해야 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함께 정년 연장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구체적으로는 의료 및 건강, 사회 보장, 노인 돌봄 산업 등 관련 서비스와 정책을 함께 내놓아 실버경제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실버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노인으로서 돌봄을 받고, 노인으로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老有所养、老有所为).

○ 그 외에도 지역사회 특히 현급 이하 지역에 문화·체육시설 운영을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생산가능인구) 7차 인구센서스에서는 2020년 중국의 15세~59세 사이의 인구는 8억 9,438만 명으로 전체의 63.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에 비해 6.79%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중국거시경제연구원 (中国宏观经济研究院) 사회발전연구소 장번보(张本波) 연구원은 "중국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여전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인적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인 '노인부양비'도 2010년 34.2%에서 2020년 45.9%까지 높아져 이미 인구보너스 시대의 마지막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함.

- 첸청(钱诚) 부연구원은 이에 대해 "현재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의 70.14%에 비해 다소 떨어졌지만, 수평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중국의 생산연령 규모는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

음.

○ 인건비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개발도상국에 비해 단위 면적당 생산 효율성은 높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한은 2010년 9.08년에서 2020년 9.91년으로 늘어났으며, 문맹률은 2010년 4.08%에서 2.67%로 낮아졌음. 중국의 40년 개혁개방이 대다수 노동자들의 질적 수준과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고, 인구 보너스가 인재 보너스로 전환을 가속화한 것이 중국 발전의 가장 큰 잠재력이다. "라고 의견을 밝힘.

-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장번보 연구원은 향후 인적 자원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양적 보너스에서 질적 보너스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

■ (인구보너스) 인구증가 둔화로 인한 중국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중국경제의 성장은 인구수에 따른 보너스에 더 많이 의존했고, 이는 당시 경제·산업 발전 단계와 맞물려 있었음. 개혁 초기의 가공무역에서 향토기업 발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산업은 모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음.

○ 최근 10년간 과학기술의 진보와 친환경 그리고 혁신이 더 널리 쓰이면서 인구보너스 보다는 인재 보너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이는 한편으론 시장 구조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렴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론 중국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요건이기도 함.

-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10만 명당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는 8,930 명에서 15,467 명으로 증가했고, 중국의 대학 교육인구는 2억 1400만 명에 달했으며, 15 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연수는 9.08 년에서 9.91 년으로 증가함.

○ 시장에서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AI+ 및 5G 기술 등이 널리 활용되고 각종 첨단산업이 확대되면서 노동인력에 대해 보다 높은 자질을 요구하고 있음.

- 동시에,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사실은 중국이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향후 장기 인구 균형발전에 대한 압박이 있겠지만, 이러한 압박 과정 또한 소비, 서비스 및 관리의 과정이며, 실버산업의 부상도 일종의 발전과 소비이다.

- 대부분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인구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음.

○ 중국의 인구보너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인재보너스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앞으로 산업고도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인구·일자리·사회보장 등의 정책을 미리 마련하여 경제의 질적 발전을 이루고 고령화 등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

■ (유동인구 증가)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40년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음. 중국은 이주가 드물었던 '향토 중국(乡土中国)'에서 높은 빈도와 대규모의 '이동 중국(迁徙中国)'으로 전환점을 맞이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전방위·다층·다원화된 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짐.

-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 두안청롱(段成荣) 교수는 “수천 년 동안 농업 문명을 기반으로 사회 발전을 이룩해온 중국 농촌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낮은 인구 유동성이었다. 농사를 하며 대대로 한곳에 정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죽는다(生于斯、长于斯、死于斯)”를 무엇보다 중요시하였고, 그 때문에 그동안 중국의 인구 이동은 없거나 현저히 적었음.

○ 1988년 국가계획생육위원회(国家计划生育委员会)이 실시한 전국 산아제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중국 인구 중 85.1%는 출생지를 떠나본 적이 없거나 떠난 적이 있더라도 조사 당시에는 되돌아온 것으로 확인됨.

○ 중국의 높은 인구이동성은 이번 조사 결과 중 유동인구 수치에서도 재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사회구조, 특히 인구 구조 자체가 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인식과 과학적 대응 그리고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 징둥그룹의 부회장이자 징둥 디지털 과학기술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선젠광(沈建光)도 마찬가지로 이번 인구센서스 데이터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유동인구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라고 분석

○ 중국은 경제발달 지역 및 도시군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역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간 공공자원이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정책을 강화하여 인구유출지역의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인구이동 영향) 쑹샹칭(宋向清)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산업경제연구센터 주임은 개혁개방 이후 인구가 동부지역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인구 이동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함.

○ 인구 이동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인구유출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이 노동력 부족과 소비력 저하라는 한계에 부딪혀 저개발지역 후발주자로서의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며, 둘째,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의 경우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새롭게 유입된 인구가 도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구의 자발적·자율적 이동이 경제 및 사회 발전 법칙에 부합하고, 사회 전체 경제 발전에 대한 노동 자원의 기여도와 효용성을 높이고,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규모의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 앞서 언급한 두안청롱 교수는 인재와 노동력의 사회적 이동을 방해하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걷어내고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개별적인 이주 노동자 중심에서 사회 발전의 기본단위인 이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전환하여 ‘가족화’ 이주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이주자들의 도시민화(市民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함.

○ 전체 도시인구 중 유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1.6%에 달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특히 밀집되어 있는 동부 해안 대도시 및 특대 도시가 상대적으로 이주자들의 공공서비스와 도시민화에 대한 수요가 절실할 것으로 보고 공공서비스 자원 공급 및 배분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 인구수는 2억 3600만 명이 증가하였고, 유동인구는 1억 5000만 명이 증가하여 전체 도시 인구 증가치 중 약 65.68%를 차지

■ (지역 쏠림 현상) 이번 7차 인구센서스에서는 동부지역은 지난 10년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하지만 동부 지역은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가 더디거나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지역이기 때문에 대신에 인구 유입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중국의 인규 유입은 주로 동부 해안 도시에 집중되어 왔고 이와 같은 추세는 여전하며, 오히려 지역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보여 적절한 우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센서스 결과를 보면 실제 거주지와 호적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일은 이미 일상화되어 중국의 유동인구는 10년 새 70% 가까이 늘었음. 특히 장강삼각주(长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청위도시군(成渝城市群) 등 주요 도시군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밀집도 또한 높아졌다고 언급함.

- 이번 7차 센서스 데이터에서 지역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 동부 및 서부 지역의 인구 비율은 증가한 반면, 중부 및 북동부 지역의 인구 비율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중국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됨. 중국 전체를 보면 인구보너스가 전반적으로 다소 약화된 편이지만, 지역별 인구보너스는 상황이 완전히 다름. 비록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으로서는 현재 큰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중국 동부지역과 남부지역의 발전에는 큰 기회가 주어진 편임. 예를 들면, 장강삼각주(长三角)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거의 20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구보너스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 (지역 쏠림 현상 원인) 중국의 지역 경제 구조가 변화했고 동시에 인구가 산업 집중 지역과 중대형 도시군으로의 이동은 중국의 지역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21세기 경제보도에서는 15개의 대중 도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각 도시들의 호적 등록 기준의 인구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도시들은 고령화가 전반적으로 심화되었지만, 충칭, 청두, 시안, 쑤저우, 샤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60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시안의 경우는 2019년 2월부터 학사 및 그 이상 과정의 학생들이 호적을 취득할 경우 연령 제한을 없애면서 호적 취득의 문턱을 낮췄음. 시안과 같이 60대 비중이 감소하는 여러 대중 도시들은 이러한 정착 규제 완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봄.

표 5. 2017~19년 중국 15개 도시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

(단위: %)

도시	2017	2018	2019	도시	2017	2018	2019
베이징	24.8	25.6	26.6	청두	21.2	21.3	21.1
상하이	33.1	34.3	35.2	우한	21.0	21.3	21.4
광저우	18.0	18.3	18.4	시안	16.0	17.9	16.5
선전	6.6	7.0	6.8	창샤	17.4	17.8	-
항저우	22.2	22.5	22.6	쑤저우	25.8	26.0	25.3

난징	20.9	21.1	22.0	션양	24.3	25.1	25.6
충칭	20.8	21.1	21.0	샤먼	14.7	14.4	14.0
톈진	23.4	24.0	24.1	-	-	-	-

자료: 각 도시 통계국, 위생건강위원회

- 도시별 인구 고령화 정도는 주로 인구 이동성과 관련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인구 순유입이 많을수록 고령화 정도는 낮아짐.

○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핵심은 도시의 경제 발전 정도임. 따라서 시안, 충칭 등과 같은 내륙 도시들은 서로 도시 정착 장려책을 내놓음과 동시에 산업발전을 통해 더 많은 인구 유입을 지원해야 함.

- 중국의 인구보너스 감소, 고령화 가속화, 향후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 가능성 등이 새로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아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도시화율) 도시와 농촌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도시 인구 비중은 63.89%로 2010년에 비해 도시 인구 비중이 약 14.2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도시화율 분석) 중국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판구 싱크탱크(盘古智库) 이펑(易鹏)이사장은 "7차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의 도시화율이 크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제14차 5개년 계획(十四五)에서 농촌인구를 도시 거주인구로 빠르게 전환하여 상주인구 도시화율을 65%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치를 잡았는데 이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거시경제연구원 장번보 연구원은 도시화와 인구이동이 새로운 투자 수요와 투자 방식 그리고 새로운 생산 방식을 이끌어 낼 것이고, 이는 소비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불러일으켜 공공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인구 이동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

- 국무원의 첸청(钱诚) 부연구원은 중국 도시화율의 지속적인 상승이 중국의 도농 이원적 구조를 크게 변화시켜 토지 및 자원 최적화, 농업 및 농촌 건설, 도시 주택 소비,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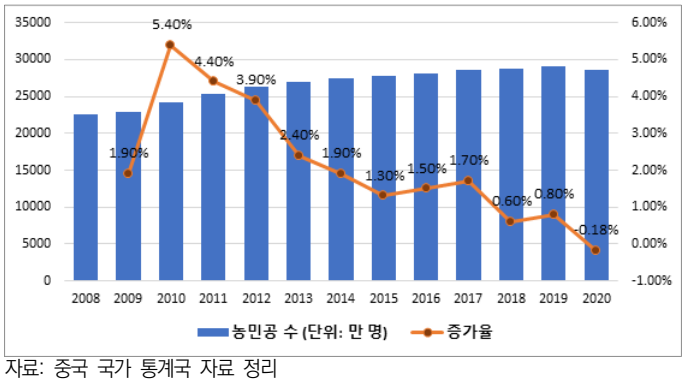
○ 또한 인구가 경제 발전에 끼치는 영향력의 핵심은 바로 균형 잡힌 인구개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인데, 인구 균형 발전전략은 △출산율의 회복과 노동력 공급의 안정화 그리고 인구보너스 급격한 감소 방지 △인적자본 투자를 늘리고 인구의 교육준·건강준·교양 등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 인구의 질적 향상 도모 △인구 분포, 경제 배치, 토지 사용 및 도시화 구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인구 이동을 유도해 지역경제발전과 선순환하는 인구보너스 창출 등을 포함

■ (농민공) 국가통계국은 매년 전국적으로 농민공 (农民工 , 농촌 출신 도시근로자)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농민공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한 2008년 이후, 11년 연속 농민공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2019년

농민공은 2억 9077명으로 집계되어 정점을 찍었음. 하지만 작년 중국의 농민공이 2019년보다 517만 명 감소한 2억 8500만 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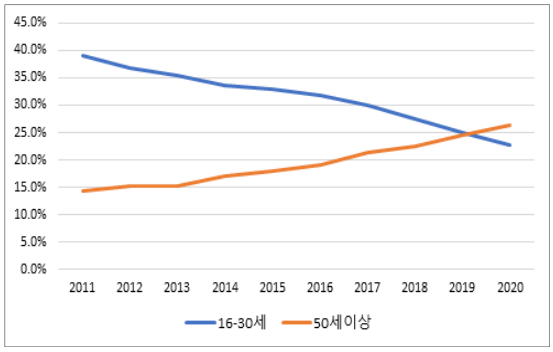
- 농민공의 수가 감소한 것보다 더 주목할 부분은 농민공의 인구구조 변화임. 통계에 따르면, 중국 농민공의 평균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 2017년 당시 농민공의 평균 연령은 39.7세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50대 이상이 전체 비중의 32.7%를 차지함. 2020년 농민공 평균 연령은 41.4세로, 이는 앞으로 10년 안에 농민공 3분의 1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함.
  - ○ 농민공의 평균 연령은 이미 중국 노동인구의 평균 연령을 넘어섰고, 그 증가세 또한 훨씬 빠르다는 것임. 2021년 중국 노동인구의 평균 연령은 37.8세인 데 비해 농민공의 평균 연령은 40.8세로 3세나 높아졌는데, 이는 농민공의 취업 방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큼.

그림 9. 중국의 농민공 수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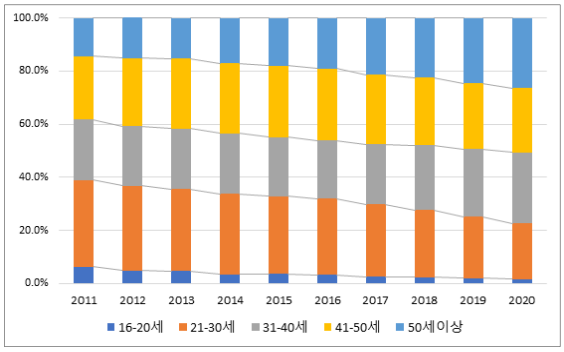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 통계국 자료 정리

그림 10. 중국 농민공 중 16~30세 및 50세 이상 비중(%)



자료: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그림 11. 중국 농민공의 연령대별 비중(%)



자료: 国家统计局(2021), 「第七次全国人口普查公报」.

-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농민공의 절반 가까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음.
  - ○ 2020년 제조업에 종사하는 농민공 수는 7797만 명으로 지난 2016년 피크를 찍은 후 약 1000만 명 정도가 줄었고, 4년 사이에 1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건설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변곡점이 조금 더 일찍 도달하였음. 건설업에 종사하는 농민공 수는 2015년 6188만 명으로 피크를 찍은 후, 2020년에는 5226만 명으로 집계되어 5년 사이 15.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농민공이 대체로 전통적인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외에도 농민공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고 있음.

- 통계에 따르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농민공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전문대 졸업 이상의 농민공은 1340만 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그보다 12.2% 증가한 3484만 명으로 집계되었음.

○ 이는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로 대학생이 된 농촌 지역의 아이들은 여전히 농민공의 신분으로 도시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잘 교육받은 농민공은 부모 세대와는 달리 다른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임.

- 대도시의 서비스산업은 젊은 농민공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택배 및 배달 등 업종임.

○ 2019년 메이투안(美团,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원 중 80%가 '이방객(异乡客)' 이며, '라이더 (外卖小哥)' 중 16%는 대학생이었음.

○ 2019년 〈노동신문〉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정규직/파트타임 택배기사의 수는 10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90년 대생 택배기사는 전체의 43%에 달하면서 택배 및 배달 업계가 농민공을 위한 새로운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냄.

- 또 하나의 흥미로운 부분은 농민공이 집중된 대도시 서비스 산업 중 고급 기술을 요하지 않는 요식업 서비스 업계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 과거 요식업계 주인들은 종업원을 채용할 때 30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두기도 하였지만, 2015년 이후로 이러한 제한은 거의 없어졌음. 현재 요식업계 종업원 채용 시 50세 이하가 수두룩하고,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식업계는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음.

- 과거 농민공의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던 산업들은 중국 전체 인건비가 오르면서 농민공 임금도 상승하여 관련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

○ 제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뉴스가 바로 "인력 쟁탈전"임. 중국 동부, 남부지역의 제조업은 특히 춘제 전후로 농민공을 '모셔오기'위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음.

○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기업은 농민공을 다수 송출하는 지방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또 일부는 귀성지에 전용버스를 보내어 직장에 편하게 복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차역 앞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물론 농민공의 노동 보수도 그만큼 인상되고 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농민공 수는 뚜렷이 감소하고 있음. 이는 과거 인구 보너스로 버텨온 중국의 제조업과 대규모 인프라는 더 이상 기존의 방식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함.

- 가장 두드러진 부문은 제조업계로 꼽을 수 있음. 2021년 3월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차이팡(蔡昉)은 중국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26.77%로, 지난 2006년 32.45%에

비해 너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조업 비중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음.

○ 이러한 견해는 현재 중국 경제계의 주류 견해이기도 함. 1970~1980년대 선진국에서 겪은 '탈(脫)공업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 관련하여 미리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임.

○ 2006년부터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매년 평균적으로 0.7% 정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노동력의 감소가 가중됨에 따라 이와 같은 하락이 가속화되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산업 고도화, 제조 인력의 처우 개선 등의 방안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함.

-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 속도가 농민공 감소세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임. 일부 젊은층의 농민공들은 노동 기술을 대체할 수 없는 학력을 가지고 있음. 그들은 학교를 나왔어도 저숙련 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음.

○ 하지만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은 이 '한 장의 졸업장'이란 스펙 하나로 인해 '탈산업화'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음. 이는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움, 또한 장기적으로 바꾼다면 이는 더더욱 어려움.

○ 유럽과 미국의 경험에 따르면 일단 제조업에서 한 번 나가게 되면 '귀향'하기는 쉽지 않음. 유럽연합의 청년 실업률은 15%에 달하지만 제조업으로 '귀향' 하지 않음.

○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의의는 아직 진행중 인건비는 점점 더 상승하고, 노동력이 높은 서비스와 제품의 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며, 인적 자산은 토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비해 더 비싸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확연한 부분임.

4. 평가 및 전망

■ (중국 정부 측의 반응) 이번 인구 조사 결과에 중국 정부는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임. 비록 성장률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성비 불균형 개선, 교육 수준 향상 등의 '질적 성장'을 이뤘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대다수임.

- 양적 측면에서는 인구 증가 속도는 비교적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함.
- 질적 측면에서는 우선 성비 불균형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주장함. 중국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정도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나라지만, 이번 통계에서는 6차 인구 조사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
- 소수민족의 인구 증가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음. 소수 민족 인구수는 6차 인구 조사 당시보다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다만 어느 민족의 인구수가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통계는 내놓지 않고 있음.
- 마지막으로 학력 수준의 제고를 근거로 들었음. 전체 인구 중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 또

한 10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평균 교육 수혜 기간 또한 증가하였음. 그 밖에 문맹률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주장함.

■ (고령화 관련 산업) 인구 고령화는 사회 발전 단계 중 필연적이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음. 앞으로 중국 사회는 한동안 이러한 기본 국정 안에서 '기회'와 '도전'이 공존할 것으로 보임.

- '도전'의 관점에서 보면, 인구의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노동 공급량을 감소시킬 것이며, 가계 노후 부담 증가와 더불어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에 압박을 가할 것임.
-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는 실버 경제발전과 노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소비를 확대하여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임.
- 산업정보기술부 등 5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노인용품 산업 발전 촉진에 대한 지도 의견(关于促进老年用品产业发展的指导意见)〉에 따르면, 2025년 전체 노인용품 산업 규모는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음.
  - ○ 시장조사기관인 iiMedia Research(艾媒咨询)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다방면 수요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할 것이며, 2022년까지 10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중국의 실버산업은 조 단위의 블루오션 시장으로 큰 잠재력과 미래가치가 있음.
- 징동 빅데이터 연구원(京东大数据研究院)에서 발표한 〈실버 경제 중심—2019 중장년층 온라인 소비 트렌드 보고서(聚焦银发经济—2019中老年线上消费趋势报告)〉에 따르면, 2017~2019년까지 노인층을 타깃으로 한 상품의 연평균 판매율은 연간 39%씩 증가했음.
  - ○ 2019년 시장에서 노인층을 타깃으로 한 상품의 수는 2017년보다 78% 증가했으며, 브랜드 수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음. 또한 더 많은 노인층들이 인터넷을 사용함에 따라 인터넷 접속이 늘면서 온라인 소매 판매도 같이 활기를 띠고 있음.
  - ○ 류후이(劉輝) 수석 데이터 책임자는 "보혜형(普惠性) 상품 및 생활서비스 제품은 실버 경제 발전의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함.
- (노인관광산업 및 통신 산업)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携程集团)의 창립자이자 베이징대 교수 겸 인구경제학자인 량젠장(梁建章)은 "인구 고령화의 심화는 일부 산업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
  - ○ 예를 들어 노인 헬스케어의 경우 비교적 큰 발전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그에 따라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
  - ○ 또한 통신·ICT 사업 분야에서도 앞으로 제조업체들이 제품 및 서비스를 설계 시 고령층 시장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언급
- (요양서비스) 요양서비스 중에서도 노인 돌봄 서비스는 단연 중요할 것임. 현재 중국의 노후 서비스는 "9073"의 구조를 보이고 있음. 즉, 노인의 90% 가량은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고 있고, 7% 가량은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3%는 노인 돌봄 시설에 입주해 있음.
  - ○ 14차 5개년 규획 기간 민정부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203개 지역에서 '주거·사회 노인 요양 개혁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밝힘. 양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양로 기관에 대한 보조 정책을 확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특히 포괄적인 양로 서비스를 개발해, 거주 단지 내 관련 기관과 협조해 양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양로 기관에 대한 보조 정책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 웨카이증권(粤开证券)의 청멍제(陈梦洁) 전략분석가(策略分析师)는 "중국의 노인 돌봄 방식은 가정, 지역사회, 기관 이 3가지 돌봄 서비스로 분류된다. 그중에서 가정 안에서의 노인 돌봄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관을 통한 노인 서비스는 아직 나아가야 할 부분이 많다. 또한 시장에는 주민 소비에 부합하고 서비스 질이 높은 전문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이 부족하며, 이러한 시설의 다양화·성숙화·시장화에 따라 부동산·헬스케어·의료 등 세부 분야가 더 큰 시장을 만들어 낼 것이다"이라고 전망함.
- (기타 실버산업) 실버산업은 다양한 수요로 광범위의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예를 들면, 의료 보건 산업, 일일 용품 산업, 가사 서비스 산업, 부동산 산업, 보험산업, 금융산업, 오락 문화 산업, 관광산업, 컨설팅 산업, 로봇 산업 등이 있음.

○ 그중 많은 부동산 기업들은 노인 돌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세롱자오예(世荣兆业)은 베이징 따싱구(大兴区)에 약 16만 제곱미터의 부지로 노인 돌봄 프로젝트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고, 빈장그룹(滨江集团)의 경우 주로 부동산 개발 및 확장 운영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양로와 관련된 부동산 사업을 5대 주요 사업 테마로 포함하였음.

○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가장 큰 관심사는 의료 및 보건 산업임. 이에 중국 본토 증시에서 노인복지 관련 테마주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어 중국의 실버산업의 향후 발전 잠재력은 무엇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 (관광 산업) 7차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면 중국의 아동(0-14세) 인구는 2억 5338만 명으로 전체의 17.85%를 차지하며, 이는 2010년에 비해 1.35%가 증가한 수치임. 중국의 아동인구의 증가로 비중이 다소 많아진 것은 중국의 출산 정책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가족을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음. 관광산업이 소비의 중요한 부분이 되면서 최근 몇 년간 부모와 자녀 간의 여행이 특히 인기를 얻어 있음. 따라서 어린이의 인구 비율 증가는 관광 업계에 큰 도움이 되며, 이에 따라 주변 및 농촌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음.
- 중국의 주요 온라인 여행사 둥청연구원(同程研究院)의 청차오공(程超功) 연구원장은 "아이들과 노인은 사실상 가족 단위의 여행에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가장 큰 두 매개체로서, 0-14세 인구는 가족여행의 핵심이다. 2016년 교육부 등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초·중·고생 연구 여행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中小学生研学旅行的意见》)〉은 현재 초·중학생들은 1년에 2~4차례 연구 여행을 필요로 하고 있어 가족여행 시장과 가족여행 소비에 대한 시장 교육 프로그램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매년 여름 휴가철이나 겨울방학에 가족여행을 가계 소비 예산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을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인구센서스 결과는 우리의 관광산업에 더 낙관적으로 다가온다."

○ 청차오공 연구원장은 이번 인구센서스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수치로 인구이동을 들었음. 그는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미래에 여러 개의 슈퍼 도시군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 관광산업의 경우 이러한 슈퍼 도시군의 형성은 관광시장의 공간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씨트립(携程)의 〈2020 년 중국 부모-자녀 여행 소비 동향에 대한 보고서(2020年中国亲子游消费趋势报告)〉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여행을 떠난 80년대생은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90년대생은 32%로 그 뒤를 차지함.
- 그 외에도 둥청여행사가 발표한 〈중국 주민의 친자 여행 소비보고서 2020(中国居民亲子旅行消费报告2020)〉에 따르면, 1년 중 부모-자녀간 여행의 특성수기로 전체이용객의 30%가 7월과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자녀 여행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부모-자녀 간 인기 여행 장소는 주로 테마파크, 동물원, 수족관, 도시 레저 및 관광, 수영장, 박물관 등이 있음. 전반적인 소비 추세는 인구이동 규모가 해마다 커지면서 이러한 가족여행 시장의 인지도가 갈수록 높아 부모-자녀 간 여행 혹은 가족여행이 가계의 실수요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임.

■ (저출산 및 세 자녀 정책 시행 관련 산업) 중국 출생아 수는 2016년 1786만 명에서 2019년 1465만 명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감소하였음.

- 출생아 수의 감소는 분유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2019년부터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2020~25년 분유의 연평균 증가율은 -4.1%로 예측되고 있음.
- (분유시장) 이와 같이 분유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는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총 판매량 감소, 그리고 신규 고객 수가 감소이며,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스러운 시장과 관련이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찾아 소비하는 사람이 극히 적었으며 허위 상품과 불법 유통 상품이 대량으로 시장에 유통되어 가격 혼란을 가져왔고, 해당 물량이 낮은 가격에 시장을 선점하는 바람에 신규 판매에 큰 타격을 받는 악순환을 가져왔음.

- (산모 영유아 용품시장)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위의 분석과는 달리 중국의 산모·영유아 시장은 2017~2020 연평균 16.5%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월 31일 중국 정부가 한 가구당 최대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이 가시적일 것으로 전망했음.

○ 이에 산모·영유아 관련 산업이 머지않아 호황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이를 참고하여 관련 시장에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高颖，「中国应加快调整人口政策，但无需惊慌」，环球时报，2021-05-12.

李婷、靳永爱、董浩月，「在应对人口问题方面我国有更大的人口规模回旋空间，21世纪经济报道，2021-05-12.

林春霞，「最新人口变化趋势：低速增长老龄化加深」，中国经济时报，2021-05-12.

马晓华，刘展超，「我国出生人口四连降 低生育率难题如何破解」，第一财经日报2021-05-12.

倪浩，邢晓婧，「三大人口趋势如何影响中国发展」，环球时报，2021-05-12.

青木、辛斌 ，「世界细看中国人口新数据」，环球时报，2021-05-12.

唐福勇，「稳定的人口数量质量 继续提供经济增长红利」，中国经济时报，2021-05-12.

王帆，「挖掘第二次“人口红利”：中国大专及以上文化程度人口10年间增加1亿人，21世纪经济报道，2021-05-12.

熊丽，「与2010年相比全国人口增加7206万人，年均增长0.53%——我国人口继续保持低速增长态势」，经济日报，2021-05-12.

栾立，「新生人口连续四年下滑 国内奶粉行业 面临市场收缩」， 第一财经，2021-05-12.

尤方明，「中国60岁及以上人口突破2.6亿
驱动银发经济与养老服务新格局」，21世纪经济报道，2021-05-12.

张赛男，「人口格局变化之下的A股观察：银发经济和母婴经济受资本追捧」，21世纪经济报道，2021-05-12.

江东瑜，「“农民工”正在变老变少： 去工业化加速问题当予重视」，南方周末，2021-05-13.

马晓华，「流动人口3.76亿 十年增70%高流动性“迁徙中国”已形成」，第一财经，2021-05-13.

林小昭，「31省份学历大数据：北京超4成上过大学，广东不到2成」，第一财经，2021-05-14.

李秀中，「四大城市群10省份集中全国超四成人口
成渝地区成新流向」，第一财经，2021-05-14.

李晓红，「数量型红利转向质量型红利 助推经济高质量发展」，中国经济时报，2021-05-17.

孙兆，「理性看待人口老龄化“银发蓝海”潜力大」，中国经济时报，2021-05-17.

索寒雪，「中国人口“密码”：新出生人口快速回升」，中国经营报，2021-05-17.

周雪松，「人口质量红利待转化 专家建议优化人口政策」，中国经济时报，2021-05-17.

范思立，「人口是大国兴衰成败的关键性因素」，中国经济时报，2021-05-18.

王帆，「人才之论：从人口红利迈向科学家红利
十年新增714万人背后的深圳人才密码」，21世纪经济报道，2021-05-18.

蔡昉，「认识把握人口形势带来的机遇与挑战」，经济日报，2021-05-21.

陈洁，「多城劳动人口流出：老龄化加速，房地产率先“退潮”」，21世纪经济报道，2021-05-21.
亚历山大·奇普曼·科蒂，「中国人口普查对外国投资者的五点启示」，环球时报，2021-05-21.
陈哲，「3.8亿流动人口住哪儿」，经济观察报，2021-05-24.
梁发芾，「农村老龄化下的养老难题可有破解之道」，中国经营报，2021-05-24.

자료 정리: 중국정법대학 석사과정 김수지 (brenze1@naver.com)